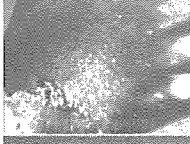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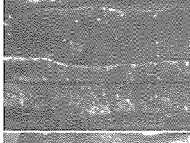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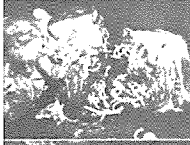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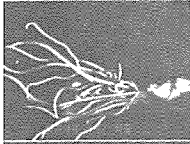


# 무서운 기생충 병



검사한 후  
너무나도

기생충 상담은  
한국기생충박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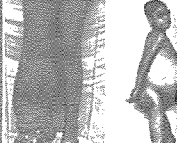
기생충

검사를  
받아야

하야



왜 ?



# 구충을 받고 되나 ?

우리몸의 기생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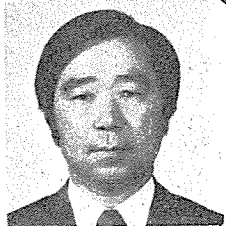
## 이 순 형

### 옛날에는

구충을 하려면 대단히 애를 먹었다. 회충을 떼기 위해서는 미역처럼 생긴 「해인초」를 운동장 한 구석의 솔에서 끓인 다음 그 끓인 물을 한 컵씩 마셔야 했다. 그러나 맛이 고약하여 구역질과 구토가 나서 토해 버리는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다. 「산토닌」이라는 약이 유명하였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회충은 잘 떨어지나 온 세상이 노렇게 보이는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회충약을 먹는 날은 굶어야 하고 기름끼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많았다.

회충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운 기생충이 그 당시에는 구충(십이지장충)이었다. 구충을 떼려면 병원에 입원하여야 했다. 처음 쓰던 약은 「사염화탄소」로, 현재는 실험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독한 약이다. 이 약은 회충과 혼합감염때 쓰면 회충이 흥분, 창창 밖으로 빠져나갈 정도였으므로 먼저 회충약으로 회충을 떼 다음 구충을 치료하여야 했다. 이 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다는 「알코파」가 얼마전 까지 사용되었지만 이 약 역시 먹기가 불편하고 구토, 설사가 나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 조충 (촌충)

이라도 떼려면 고생이 막심 [하였었다. 비자라는 열매를 한되쯤 조청에 찍어먹어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재래의 치료법이었고, 완치가 안되고 재발이

잘되는 바람에 무지한 환자들은 휘발유를 마시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병원에 입원하여 구충을 할때에도 저녁을 굶고 설사를 시킨다음 다음날 아침을 또 굶고 약을 먹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 설사를 시켜야만 비로소 치료가 되었었다.

이렇게 치료법이 있는 기생충 감염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고, 간흡충(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은特效약이 없어 기생충에 걸린 것을 뺀히 알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 그런데

요즘은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먹기 편하고 값도 비교적 비싸지 않은 좋은 구충제가 많이 개발되어 기생충에 걸렸다는 사실만 알면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또 이른바 광범위 구충제라 하여 한 구충제로 회충, 구충, 요충, 동양모양선충등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도 있게 되었고, 얼마전까지도 마땅한 구충제가 없었던 편충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간흡충을 비롯하여 폐흡충, 장흡충, 심지어 조충류까지도 치료가 되는 구충제까지 개발되었다.

## 이런

좋은 구충제의 출현으로 우리나라의 기생충감염은 눈에 뵈지 않게 줄어들고 있다. 옛날,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기생충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리 만큼 거의 전 국민이 기생충에 걸려있던 때와 비교하면 금석지감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기생충약을 어떻게 쓰는 것이 현명한가를 알아보자 기생충 검사를 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불결하게도 생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않고 구충제만 먹으면 안되느냐고 묻는다.

## 결론

부터 얘기하면 안될것은 없으나 비용과 건강위험의 부담이 커질뿐이다. 왜냐하면 첫째 무슨 기생충에 얼마나 걸려있나를 정확히 모

르기 때문이다. 마치 병사가 표적을 보지않고 총을 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좋은 구충제를 낭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연한 약값만 부담하게 된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로는, 아무리 부작용이 적은 구충제라 할지라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남용할 때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임신부, 병약자, 한 살 미만의 아기, 고령자에서는 경우에 따라 기생충이 있을 때라도 그 치료를 뒤로 미루는 예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구충제라도 부작용이 적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한다.

## 이렇게

검사를 하지않고 구충제를 몽알 집어먹듯 하기 보다는, 검사를 하여 기생충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약을 복용하는 편이 안전하고 경제적인은 자명하다. 현재 구충제 비용보다는 검사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있는 회충, 편충같은 기생충 말고도 여러가지 특별한 기생충을 검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물론 거의 온 국민이 회충같은 기생충에 걸려있는 경우, 검사하나 마나 다 걸려있을 것이 뻔하므로 이런때는 번거로운 검사를 생략하고 우선 모두에게 구충제를 주어 집단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구충방법은 응급용이며, 우리나라 같이 뚜렷하게 기생충이 줄어드는 고장에서는 차근 차근 검사를 하여 온갖 기생충을 살살이 찾아내서 치료를 하여야 되는 것이다.

## 기생충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매번 검사만 받고 구충은 못한다고 귀찮게 생각할지 모르나, 잘 생각해보면 기생충이 없어 구충을 안하는 것이 다행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기생충검사에 필요한 가검물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기생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보건교육의 한 방편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 부가효과도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검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생충감염양상과 역학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본적인 기생충 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충제 남용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및 건강의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기생충감염이란 어느 개인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지역사회나 국가의 공동문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쥐잡기운동과 같다고도 하겠다.

## 어느

한사람이 부지런히 쥐를 잡았다하여 우리나라의 쥐가 축이 나는 것은 아니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쥐를 잡을때 어느 한 집에서 쥐를

## ☺ 모의극장

### ■ 그 선생에 그 제자

선생 : 다섯 빼기 셋이면 얼마가 남느냐?  
 학생들 : 저요! 저요!  
 학생 1 : 셋입니다.  
 학생 2 : 으, 내가먼저 대답할걸  
 학생 3 : 아, 역시 답은 알고보면 쉬워  
 선생 :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 ■ 이 유

소년 : 할아버지,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어서 불편하셨겠네요?  
 할아버지 : 그럼 답답했지  
 소년 : 등잔불을 켜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 일찍 주무셨겠네요?  
 할아버지 : 그럼  
 소년 : 아아 이제 알겠다.  
 할아버지 : 무얼말이나?  
 소년 : 일찍 잤으니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많이 나

왔겠죠.

할아버지 : ! ?

### ■ 식인종 시리즈

육체미선수를 보고 하는 말- 울퉁불퉁 고소해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겨도 맛은 좋아



잡지 않는다면 그 집 쥐들이 불어나 온 나라를 퍼져 갈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당한 약을 선택하여 구충하는 일이 기생충을 박멸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 검사

를 안받고 구충도 하지않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무책임한 일이지 만, 검사없이 구충제를 먹는 것도 소경이 송곳으로 벼룩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생충검사를 하지않고 구충제를 먹는 일은 자유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의 낭비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대국적으로 볼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조금

번거롭더라도 검사를 받고 구충을 하면 검사도 구충도 아주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올 것이다.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